안용주 선교사 가정 2026년 6월 선교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편 23편 1,2절)

좋으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둠비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판 곳에서 충분한 양과 깨끗한 물을 주셨습니다. SMT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함께 우물 감사 예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특유의 POLE POLE(천천히 천천히)로 시간이 지연되며 솔라와 워터 펌프를 설치하고, 물탱크 탑을 만들고, 땅을 파서 파이프를 연결하는 시간들이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계획한 주일까지 파이프가 연결이 되지 않아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나 고민 고민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맘 고생이 심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정말 기도를 많이하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배 전 토요일 저녁에 마침내 모든 설치를 마치게하시고 정말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극적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먼 길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찾아 오신 단기선교팀원 분들의 섬김으로 갈릴리, 벧엘 교회의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큰 위로와 사랑을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일 성경학교로 요한복음 3장16절을 암송하며 다양한 크래프트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200명 분을 준비했는데, 정확히 200명의 아이들이 찾아와 모자람이 없는 즐거운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팀원분들께서는 한 것이 없다하시지만, 평생 선물을 받아본적이 거의 없는 아이들, 가정에서도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누군가 먼 곳에서 자신을 찾아 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다양한 선물을 나누었다는 추억은 아이들의 평생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일정이지만 200명의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렇게 함께 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이 모두에게 축복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팀이 다녀가시면 왜 그 먼 곳에서 자신들을 찾아 왔는지, 왜 땀을 흘리며 댓가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우어 주며 기뻐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며 또 내년을 기다립니다.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함께 공놀이도하고 종이접기와 팔찌, 왕관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는 모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오랜 시간 걸리는 사역이었지만, 모두 감사와 기쁨의 밝은 얼굴이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의 방향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모아 집회하는 시간도 갖지만, 한 영혼을 찾아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방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선교팀 분들이 심방 가족들의 이름을 외워 오시고, 축복송을 만들어 아름다운 하모니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각 가정을 찾아가 만나는 모든 시간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딸이 있는 가정에 심방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위로하심을 선교팀을 통해서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귀한 선교의 시간을 위해 이둠비까지 직접 찾아 와주신 분들 마음으로 함께 찾아 오신 분들의 삶에도 좋은 목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갈릴리 교회 예배당 내외벽 마무리 와 벧엘교회 건축, 우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갈릴리교회 앞으로의 우물 운영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3. 제 영주권 리엔트리 연장을 위해서 가족 모두 미국 방문(8/6 귀국)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